

tbs라디오 「서울속으로 황원찬입니다」 서울옛보기 (목) 11:15~11:25

e-서울통계로 보는 오늘의 숫자

I·SEOUL·U
서울통계
SEOUL STATISTICS

서울시민이 느끼는 사회전반의 불평등 정도는?

2017. 8. 31(목)

정 보 기 획 관
(통계데이터담당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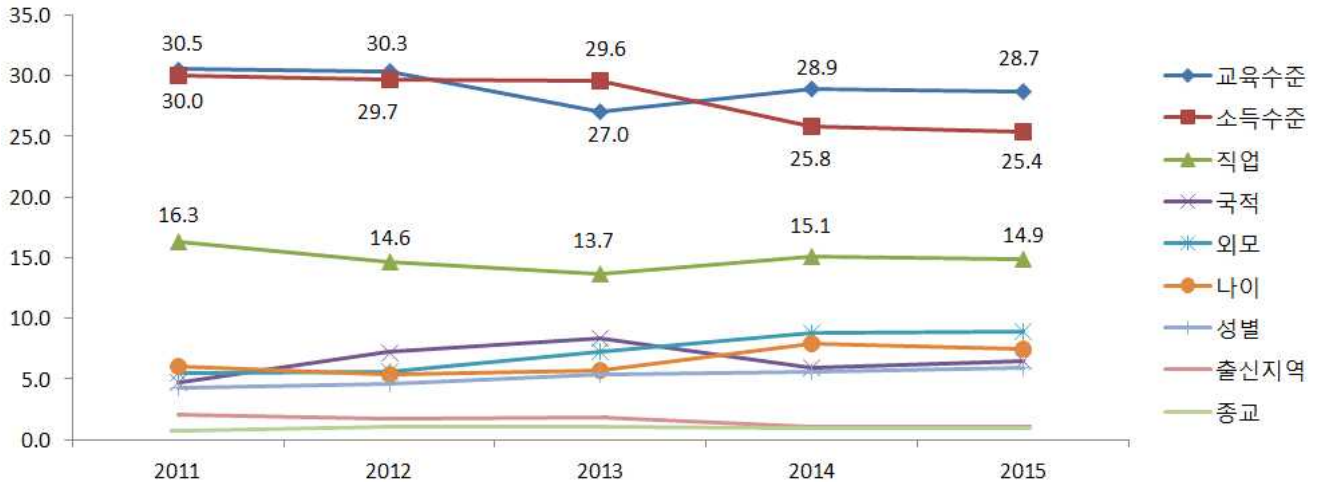
작 성 자 통계데이터담당관 :안정준☎2133-4260 통계조사팀장 : 신육재☎4284 담당 : 박창현☎4285

서울시민이 느끼는 사회전반의 불평등 정도는?

- 가장 많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요인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
 -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회적 차별 요인은 교육수준(28.7%), 소득수준(25.4%), 직업(14.9%)순 인 것으로 나타남
 - 특징적인 것은 그 뒤를 잇는 것이 외모(8.9%)라는 점. 이는 실제로 외모지상주의 혹은 외모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,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1년에는 외모가 5.5%였으나, 2015년에는 8.9%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

〈 사회적 차별 요인 추이 〉

(단위 : %)



〈 사회적 차별 요인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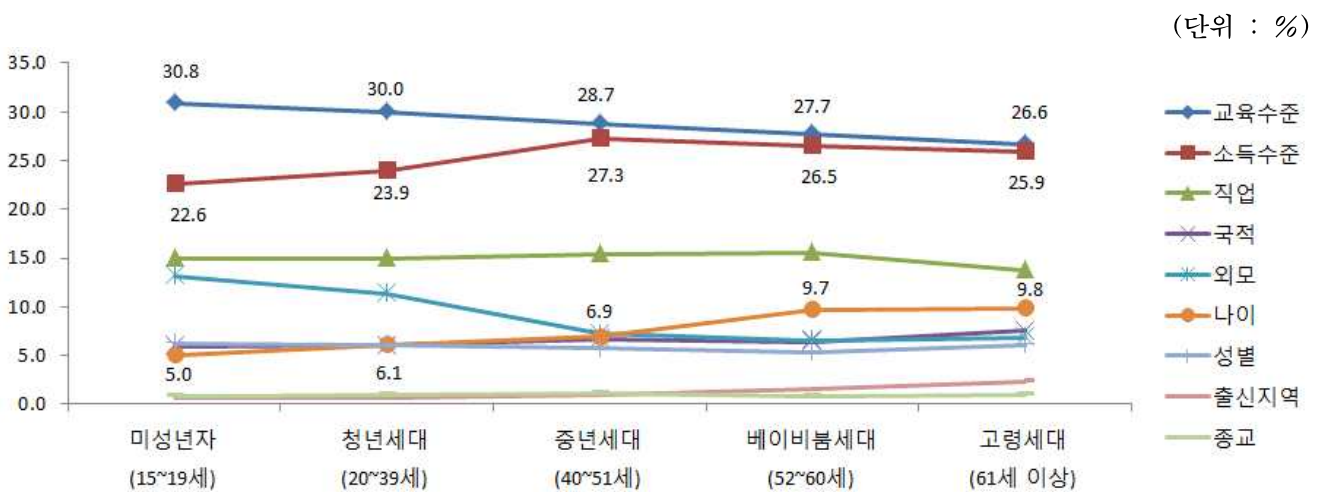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차별요인 연도 | 교육수준 | 소득수준 | 직업 | 국적 | 외모 | 나이 | 성별 | 출신지역 | 종교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
| 2011 | 30.5 | 30.0 | 16.3 | 4.7 | 5.5 | 6.0 | 4.3 | 2.1 | 0.7 |
| 2012 | 30.3 | 29.7 | 14.6 | 7.2 | 5.6 | 5.4 | 4.6 | 1.7 | 1.1 |
| 2013 | 27.0 | 29.6 | 13.7 | 8.4 | 7.3 | 5.7 | 5.4 | 1.8 | 1.1 |
| 2014 | 28.9 | 25.8 | 15.1 | 5.9 | 8.8 | 7.9 | 5.6 | 1.1 | 1.0 |
| 2015 | 28.7 | 25.4 | 14.9 | 6.5 | 8.9 | 7.5 | 5.9 | 1.1 | 1.0 |

○ 고연령층에서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, 저연령층에서는 외모로 인한 차별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

- 세대에 따른 사회적 차별요인의 차이를 보면, 전 세대에 걸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,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
- 세대별 차이는 상위 3개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요인에서 드러남. 미성년자와 청년세대는 외모를 주된 차별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, 베이비붐세대와 고령세대는 나이를 주된 차별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음

〈 세대별 차별 요인의 차이 〉



〈 세대별 차별 요인의 차이 〉

(단위 : %)

| 차별요인 세대구분 | 교육 수준 | 소득 수준 | 직업 | 국적 | 외모 | 나이 | 성별 | 출신 지역 | 종교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
| 미성년자 (15~19세) | 30.8 | 22.6 | 14.9 | 5.9 | <u>13.2</u> | 5.0 | 6.2 | 0.6 | 0.8 |
| 청년세대 (20~39세) | 30.0 | 23.9 | 14.9 | 6.0 | 11.3 | 6.1 | 6.1 | 0.6 | 1.0 |
| 중년세대 (40~51세) | 28.7 | 27.3 | 15.4 | 6.7 | 7.2 | 6.9 | 5.7 | 0.9 | 1.1 |
| 베이비붐세대 (52~60세) | 27.7 | 26.5 | 15.6 | 6.4 | 6.5 | <u>9.7</u> | 5.3 | 1.5 | 0.8 |
| 고령세대 (61세 이상) | 26.6 | 25.9 | 13.8 | 7.5 | 6.8 | <u>9.8</u> | 6.1 | 2.3 | 1.0 |

○ 경제관련 분야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

-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이란,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, 서울시민들이 비교적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대학교육의 기회('공평하다'의 비율 31.1%),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(25.3%), 남녀평등(24.5%)으로 나타남
-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소수자의 권리('불공평하다'의 비율 46.8%), 조세정책(46.8%), 수입과 소득(43.1%), 일자리와 취업기회(41.7%)로 소수자의 권리를 제외하면 모두 경제와 관련된 분야

〈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 〉

(단위 : %, 5점 만점)

| 5점척도 사회정의 | ①전혀 공평하지 않다 | ②별로 공평하지 않다 | ③보통이다 | ④다소 공평하다 | ⑤공평하다 | ①+② | ④+⑤ | 평균 (5점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수입과 소득 | 5.1 | 38.0 | 34.2 | 21.2 | 1.4 | 43.1 | 22.6 | 2.76 |
| 일자리-취업기회 | 6.2 | 35.5 | 38.3 | 18.4 | 1.6 | 41.7 | 20.0 | 2.74 |
| 대학교육의 기회 | 3.3 | 24.5 | 41.1 | 28.5 | 2.6 | 27.8 | 31.1 | 3.03 |
| 수도권-지방 격차 | 3.1 | 30.7 | 40.8 | 24.0 | 1.3 | 33.8 | 25.3 | 2.90 |
| 도시-농촌 격차 | 5.1 | 32.9 | 40.0 | 20.4 | 1.6 | 38.0 | 22.0 | 2.80 |
| 사회복지 | 4.0 | 30.1 | 41.9 | 22.5 | 1.5 | 34.1 | 24.0 | 2.87 |
| 조세 정책 | 7.0 | 39.8 | 36.7 | 15.3 | 1.3 | 46.8 | 16.6 | 2.64 |
| 남녀평등 | 3.2 | 29.1 | 43.2 | 22.7 | 1.8 | 32.3 | 24.5 | 2.91 |
| 소수자의 권리 | 8.0 | 38.8 | 40.2 | 12.4 | 0.3 | 46.8 | 12.7 | 2.59 |

※ 자료출처 : 서울시·서울연구원, 서울서베이